

임진왜란기 지방 이서의 전쟁 경험과 정리 작업

-이탁영의 『정만록』을 중심으로-

박인호*

【국문초록】

『征蠻錄』은 의성 출신의 향리인 李擢英(1541-1610)이 겪었던 임진왜란의 전쟁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임진왜란시 營吏로서 경상 감사를 곁에서 수행하였던 인물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인의 신분적 위치에 있던 이가 바라 본 임진왜란이라는 관점에 착목하여 『정만록』의 사료적 가치와 사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참전을 통해 지방 사족들은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의 지속적인 창출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전 가문에서는 출신 인물들의 전공이나 역할을 강조하는 倡義錄이나 日記 기록들을 확대 재생산하여 왔다. 이로 인해 오늘날 임진왜란을 보는 시각에서는 사족들의 倡義 논리가 적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관료들도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각종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탁영은 경상 監營의 營吏 역임자이다. 이에 따라 『정만록』은 지방 吏胥의 시선에서 임진왜란을 기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내용에서는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이탁영의 근거 지역이 경상도 의성이며, 모셨던 상관이 金醉와 金誠一 등 남인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남인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시 경상 감사였던 김수의 활동과 김수 집안 인물들의 비극적인 피해 상황을 자세히 적고 있다. 사족들의 일기나 실기와는 달리 이탁영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전황과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며, 개인적 단상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정만록』은 경상도에 거주하였던 영리가 남인 상관을 모신 정치적 입장과 중인이라는 신분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의 모습이라는 점에 일정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이탁영, 『정만록』, 營吏, 吏胥, 김수, 임진왜란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이서의 관점에서 본 임진왜란 |
| II. 『정만록』 이본 | IV. 맺음말 |

I. 머리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의 기본적인 국가 질서를 변화시킬 정도의 미증유의 것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의 기록 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전란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전쟁기간 동안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우리나라 사학사상 가장 사적인 역사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였다.

일본군이 직접 침공하고 일시적으로 주요 거점을 점령하였던 임진왜란이 우리나라 역사 편찬에 미친 영향은 컸다.¹⁾ 사족들은 의병 창의와 피난, 호중, 포로 등 전란 중의 일을 적은 일기를 남겼으며, 후손들은 '실기'의 편찬을 통해 조상들의 공적을 보이려고 하였다.²⁾ 의주로 피난하였던 선조는 각종의 교서와 언설을 통해 애민정신과 전란 극복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후대에는 선조의 항전 노력과 극복 의지를 강조한 『宣廟寶鑑』 등 국가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찬의 책이 편찬되기도 하였다.³⁾ 또한 일본군의 침략로 상에 있던 지방관들이나 특정 직위에 있었던 인물들은 초기 패배에 대한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의병이나 사족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자신들의 행적을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공적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관료나 사족들이 각자 다른 입장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료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후대에 편찬된 임진왜란 관련 기록은 집안이나 당파의 입장이 개재되면서 갈수록 자료의 과장과 변개가 이루어져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주기에 이르렀다.

한편 양반층 외에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자 사용층이 바로 중인이다. 중인의 관점에서 전란을 어떻게 보는가도 임진왜란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접근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중인이 남긴 전란에 대한 기록은 잘 남아 있지 않다.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정만록』은 의성

- 1)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상훈, 2010, 「임진왜란관련 사료해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195~262쪽 참조.
- 2) 임란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대부분의 일기류는 이에 해당한다. 일기를 내용별로 분류한 것은 박인호, 2008, 「임진왜란기 지방 지식인의 피난살이 - 장현광의 용사일기를 중심으로 -」, 『선주논총』 11, 3~6쪽 참조.
- 3) 박인호, 2012, 「임진왜란의 경험과 역사 정리 작업 - 신석겸의 선묘중흥지를 중심으로 -」, 『한국사학사학보』 26, 221쪽 ; 정해은, 2013, 「조선후기 선조에 대한 현창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6, 167~171쪽.
- 4) 중인이 남긴 임란 기록으로 일기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의성 출신 영

출신의 향리인 이탁영이 정리한 임진왜란 기록이다. 그 동안 이 책은 임란사 연구의 기초 사료라는 측면에서 역사학계에서 많이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정만록』을 증인의 신분적 관점에서 바라 본 임진왜란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 착목하여 『정만록』의 사료적 가치와 사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II. 『정만록』 이본

현재 남아 있는 『정만록』은 모두 4종류가 있다. 이탁영은 경상도 감영 소속의 營吏였다. 영리는 감사 곁에서 감영과 관련된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⁷⁾ 이탁영은 임진왜란 당시 경상 감사 金晬(1547-1615) 휘하의 贊劃이었으며, 지위

리인 李擢英의 『征蠻錄』과 인동 출신 향리인 劉席珍의 『九世祖戶長公日記』 등이 있다. 교동의 貢生 출신인 高彥伯의 「龍蛇日錄」(『海藏實記』 내)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임진왜란 때의 공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으나 후대에 이를 감추면서 증인임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 5) 이 연구는 증인층과 사족층의 전쟁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가, 증인층의 시각도 결국은 특정 계급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이 점에 유의하면서도 증인의 관점에서 본 임진왜란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 6) 『征蠻錄』에 대해서는 보물로 지정되면서 해제적 소개가 있었으며, 이후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료로 인용되었다. 이를 사학사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으며, 권기중은 향리층의 임란기 동향을 다루면서 이탁영의 행로를 소개하고 있다. 권기중, 2007, 「임진왜란 시기 향리층의 동향과 전후의 향리사회」, 『역사와 현실』 64, 104~105쪽. 문학계에서는 실기문학의 일환으로 이 책을 다룬 장경남의 연구가 있다. 장경남, 1997, 『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이훈상, 2006, 「조선후기 경상도 감영의 영방과 안동의 향리사회 - 안동 향리사회의 영방 주도권 유지 전략과 향리 가계들의 상호 견제 기제 -」, 『대동문화연구』 55, 376쪽.

나 역할로 보아 상급의 기관 영리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탁영은 전란 중 감사의 궤를 다수 작성하고 있다.

임진왜란 후 공적인 기록이 전쟁으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관련된 기록을 모두 보고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에 1603년 도체찰사 李元翼(1547-1634)은 경상 감사 李時發(1569-1626)에게 영남 지역의 관련 사적을 채집하여 올리도록 하였다.⁸⁾ 이때 **이탁영은 매일 기록하였던 것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⁹⁾ 현재 보물본 『정만록』은 매일 적은 일기 초고를 연도순으로 적고, 관련 각종 공문 자료를 첨부하여 초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2질을 만들어 1질은 왕에게 올렸다가 다시 내려 보내 본가에 있게 되었으며, 1질은 감영에 보냈다.¹⁰⁾

『정만록』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 당시에도 주목받고 있었다. 도사 金弘微는 兵使로부터 『정만록』의 존재를 듣고서 이탁영에게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¹¹⁾ 뒤 시기에 마참가지로 주목을 받아 後溪 李頤淳은 『정만록』을 읽고서 이탁영의 효행을 칭송하는 시를 남기고 있다.¹²⁾ 冠陽 李匡德은 『정만록』을 읽고서

8) 『認齋集(崔睨)』, 「인재선생연보」, 1603년. “三十一年癸卯 先生四十一歲 四月以朝命撰輯亂中雜錄 時安平李公以亂後事蹟撰輯事 陳于榻前 道伯因朝令差出 左右道都廳及列邑有司 先生爲右道都廳 宋進士遠器爲左道都廳”
『孝思齋先生征蠻錄』 인, 「附錄」, 〈征蠻錄 命名事由〉. “亂既平 上命體府李元翼訓本營李時發 悉選士夫有識者 採輯道內事蹟事 亦及老廢 乃敢以當日所記者 撮要修上 因啓下爲征蠻錄”

9)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상도 지역의 난중사적을 정리한 것이 申佺 후손가에 전하는 『亂蹟彙撰』이다. 박인호, 2016, 「임진왜란기 구미 지역의 사족 동향과 의병 활동」, 『국학연구』 30, 384쪽.

10) 『孝思齋先生文集(李擢英)』 권2, 「부록」, 〈遺事(李廷薰)〉, 〈監司封啓〉.
11) 『정만록』 건, 1592년 11월 18일. “留安東 亞相乃名賢金弘微 曾未有現謁之分(中略) 命納征蠻錄 錄乃吾私記之文 得聞於兵相 如是入納云 不勝未安”
12) 『後溪集(李頤淳)』 卷1, 「詩」, 〈覽征蠻錄有感(征蠻錄 卽聞韶縣吏李擢英所錄也 吏居家有孝行 壬辰以營吏 赴巡相幕下 積苦兵間 而一念未嘗不在於老母 觀其所錄 良覺苦心 後有一官人 名其堂曰孝思云)〉, “一身從吏役 八載躡兵塵 有事當殉國 無時不戀親 堂名表孝思 征錄識忠眞 才傑元無類 遺風宛起人”

임진왜란에 대한 소회를 후서로 붙이고 있다.¹³⁾ 保晚堂도 제후를 남기고 있다.¹⁴⁾ 제후를 쓴 보만당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효사재선생정만록』에서는 安鍊石으로 적고 있다. 이와 같이 『정만록』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임진왜란을 연구하면서 동시기 기록에 주목하였다. 이 때 임진왜란 관련 기록들이 대대적으로 수집되고 출판되었다. 『정만록』도 이 과정에서 수집되었으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일본에 남게 되었다. 하나는 초고용 책의 下를 베낀 것이 天理大學校 圖書館 今西文庫本의 『용사일록』이며, 왕이 어람한 후 내려 보내온 啓下 『정만록』과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 京都大學校 圖書館 河合文庫本의 『정만록』이다.

현대 시기에 들어와서는 후손들이 啓下 『정만록』을 바탕으로 자료들을 정리하여 석인본으로 간행하였다.

1. 보물본 『征蠻錄』

후손가에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¹⁵⁾ 건·곤의 2권 2책이다. 乾은 전투 상황, 병력 배치, 조야의 사정을 기술한 일록을 정리한 것이며, 坤은 教書·狀啓 通文 牒報·馳報 檄文 등 각종 문서들을 수집하여 적어 놓은 것이다. 기술 형태로 보아 임진왜란 당시 작성된 초고가 아니라 일정 시간에 지난 뒤에 초고와 여러 문서들을 정리한 형태이다. 아마도 임진왜란이

13) 『冠陽集(李匡德)』 권15, 「序」, 〈征蠻錄後序〉. “壬辰之亂 義城吏李擢英 隸於巡察使金睟軍中 手記其時事 爲征蠻錄二篇 (後略)”

14) 『정만록』 건, 〈題征蠻錄後〉. “翼主將 星奔月涉 冒鋒鏑不悔 忠也 念老慈揮淚摧腸 見夢寐不懈 孝也 啓草多出其手 謀劃動合其機 才也 主將留之而不聽去 百口仰之而免於死 能也 噫 忠孝才能 安得如斯人者 用之於今之世也 惜乎 當日諸公 不爲重於朝 而使之當一面也 歲壬辰重陽保晚堂主人書”

15) 『정만록』, 2000, 『임진왜란사료총서』 7(문학), 아세아문화사 영인. 보물 제 880호, 지정일 1986년 10월 15일.

끝난 후 자료 수집령이 내려지자 이의 제공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초고를 정리하고 문서를 편집한 초고 단계의 기록으로 보인다.

乾권의 표지 뒷면에 임진왜란 당시의 여러 관리들의 座目을 적어 놓았다. ‘壬辰變後日錄’이라는 제하에 기술하고 있어 최초의 명칭은 이것으로 보인다. 건권의 기술 시간은 1592년 3월 9일부터 1599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일기 기록을 일정 시간이 지난 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¹⁶⁾ 수록 내용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임진왜란의 상황에 대하여 적고 있다. 1592년 임진년 기록은 자세하나 다음 해인 계사년 이후는 영리로서 전문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과 정보가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간략해졌다. 계사년 이후는 주로 명나라 군대의 동향과 주요 전황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적고 있다. 1598년에는 丁應泰가 경리 楊鎬와의 갈등 속에서 조선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었다고 모함하였던 奏本¹⁷⁾에 대응하여 우의정 李德馨 등과 형조 판서 李忠元 등이 올린 상서문을 수록하고 있어¹⁸⁾ 이 사건이 조선에 가져다 준 충격을 엿볼 수 있다.¹⁹⁾

坤권의 문서 자료는 전란 중 수집된 각종 문서 자료를 기록해 둔 것이다. 이 문서들은 이 시기 각급 기관의 공식적인 기록들이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료적 가치가 크다. 특히 경상 감사 김수와 경상 좌감사 김성일의 이름으로 올린 장계는 당시 지역 단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들이다.

끝에 수록된 일본인 連汝文에 대한 문초 자료나 許儀後의 보고 자료는 외국 인물과 관련된 기록이다. 연여문은 왕조실록과 『서애집』에서는 呂汝文으로 나온다. 연여문은 임진왜란 때 降倭가 되었으나 조선 진영에 왜의 검술과 진법을 전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후일 1598년 울산에서 일본군 진영을 정탐하다가 죽은 인물이다.²⁰⁾

16) 일부 기록은 후일 해당 기사를 적어 넣은 부분도 있다. 『정만록』 권, 1593년 6월 21일.

17)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계묘(21일).

18) 『정만록』 권, 323~337쪽.

19) 이탁영이 개인적으로 이항복에게 올린 서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효사재선생문집』 권1, 「서」, 〈上相國白沙李先生〉).

許儀後의 보고 자료는 일본에 피납된 중국인 허의후가 전쟁 전 올린 보고서이다.²¹⁾ 당시 중국 조정에 전쟁 징후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올라왔으나 유독 조선에서 전쟁 징후에 대한 보고가 없어 중국이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²²⁾ 그런데 허의후의 문서에는 고려국이 사신을 보내 일본에 조공하였으며 관백에게 군사를 일으킬 것을 재촉하였다는 내용까지 있었다.²³⁾ 허의후의 전달 내용은 1591년 진주사 金應南을 통해 조선에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병부를 통해 조선 왕에게 咨文을 보내 왔으므로 조선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이 무고임을 해명하였다.²⁴⁾ 이 기록이 『정만록』과 『난중잡록』에 수록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이 문건이 조선사회에서 큰 관심사였음을 볼 수 있다.

2권 2책	내 용	비고
건	壬辰變後日錄	
곤	(序), 狀啓1, 教書(一敎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人等, 一敎中外臣僚耆老大小軍民等), 檄文(全羅道兼都巡察使李洸謹移檄于慶尙道方伯與守令諸將僉前, 招諭使金誠一移文于左兵使朴晉, 我國被擄人處通諭檄書, 招諭使金誠一通文道內守令邊將文武出身父老子弟閑良軍民人等, 前縣令趙宗道通文), 倭人連汝文年五十, 狀啓2, 京城消息, 狀啓3, 一敎慶尙道土民等書, 日本被擄唐人許儀後(上書, 一陳日本國之詳, 一陳日本國入寇之由, 一陳禦寇之策, 一陳日本關伯之由, 一陳日本六十六國之名, 再具), 曉諭軍民書	장 계 1·2는 김수, 장계3은 김성일의 이름으로 올린 것임.

20) 『西厓集(柳成龍)』 권15, 「잡저」, 〈山城說〉.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임자(27일).
 21) 趙慶男의 『亂中雜錄』에는 허의후의 보고문이 전하나 66국 이름 등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22) 『國朝寶鑑』 권30, 「선조조」7, 선조 24년(1591).
 23) 이 문구에 대해 조경남은 조선이 입공해 왔다고 일본이 거짓말을 퍼뜨려 이에 허의후가 일본에 퍼진 잘못된 소문을 듣고 상주한 것으로 이는 만고에 다 씻지 못할 치욕이라고 별도의 주석을 달고 있다(『난중잡록』, 1591년 2월. “其時 日本誣稱 我國遣使入貢 傳播其國 故儀後因其所聞 謬奏如此 此乃千萬古不盡洗之羞辱也”).
 24) 諸葛元聲, 『兩朝平攘錄』; 北京大 朝鮮文化研究所 主編, 1990, 『壬辰之役史料匯輯』,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出版, 38쪽.

2. 天理大圖書館本 『龍蛇日錄』

天理大學校 圖書館 今西文庫에는 『용사일록』의 제명으로 필사본 1책이 있다. 『조선학보』에 영인되어 있다.²⁵⁾ 천리대 도서관본 『용사일록』은 현재 남아 있는 보물본 『정만록』의 坤편을 일제 강점기에 베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보물본 『정만록』의 坤에서 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보물본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 『용사일록』에서도 결락처리 있기 때문이다.

권 2책	내 용	비고
권		부전
곤	狀啓, 教書(一教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人等, 一教中外臣僚耆老大小軍民等), 檄文(全羅道兼都巡察使李洸謹移檄于慶尙道方伯與守令諸將僉前, 招諭使金誠一移文于左兵使朴晉, 我國被擄人處通諭檄書, 招諭使金誠一通文道內守令邊將文武出身父老子弟閑良軍民人等, 前縣令趙宗道通文), 倭人連汝汝年五十, 狀啓, 京城消息, 狀啓, 一教慶尙道士民等書, 日本被擄唐人許儀後(上書, 一陳日本國之詳, 一陳日本國入寇之由, 一陳禦寇之策, 一陳日本關伯之由, 一陳日本六十六國之名, 再具), 曉諭軍民書	序가 생략됨

3. 京都大圖書館本 『征蠻錄』

京都大學校 圖書館의 河合文庫에는 『정만록』의 제명으로 필사본 5권 2책이 있다. 권1-권2, 권3-권5가 각 1책으로 편제되어 있다. 『조선학보』에 영인되어 있다.²⁶⁾ 원본을 볼 수 없어 필사 연대를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으로 보아 자료 수집 령에 따라 관련된 자료를 최초로 편집하였던 초고본의 구성과 형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보물본과는 다른 별도의 것으로 일록의 내용이 사적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 이탁영의 행적을 추송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아 현재의 형태를 만든 것으

25) 『용사일록』: 1975, 『조선학보』 76, 조선학보, 73~128쪽.

26) 『정만록』: 1975, 『조선학보』 77, 조선학보, 91~150쪽.

로 보인다.

보물본과 비교할 때 일부 장계 기록에서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보물본과 합하여 하나의 『정만록』을 구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후대에 별도로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보물본의 일록에서 이탁영이 자신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므로, 후대에 누군가가 이를 축약하여 사적으로 편성하고 그 외 장계 기록과 부록 기록을 합하여 성책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후손가에 보관되었다가 일본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권	내 용	비고
권1	狀啓(白雲峯還本道啓, 龍仁奔潰後到牙山獻誠啓, 自禮山發還本道啓, 到南原請罪逃還將士啓, 還本道咸陽啓, 請擇送右兵使啓, 請援兩湖兵啓, 賊兵形止啓, 獻誠啓, 請都元帥馳援啓, 獻誠啓, 請別差將領率江原道軍來援啓)	
권2	狀啓(請便宜從事啓, 獻誠啓, 賊犯湖南啓, 左道列邑鎮形止啓, 賊中逃還人取招啓, 獻誠啓, 天兵接待事啓, 都元帥啓狀)	
권3	事蹟上	
권4	事蹟下 附(道內留陣天將姓名, 本道軍官姓名, 00姓名)	
권5	附錄(孝思堂傳, 孝思堂記[申塾], 祭文[安應昌], 又[徐命敷], 邑誌, 題征蠻錄後[安練石], 忠孝堂識[吳澈常])	

4. 석인본 『孝思齋先生征蠻錄』

1959년 후손들이 관련 자료를 편집하여 『孝思齋先生征蠻錄』 6권 3책과 『孝思齋先生文集』 2권 1책, 총 4책을 석인하였다. 그런데 석인본 『정만록』에 1928년 적은 京畿觀察使 李圭桓의 서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 때 대체적인 석인본의 형태를 완성해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발문과 지문을 1957년과 1959년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 책의 편차와 구성 내용은 1975년 『조선학보』에서 의해 河合文庫本이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석인을 위한 초고가 남아 있지 않아 석인본과 경도대본과의 선후관계는 잘 알 수 없으나 1920년대에 보물본과 유출되기 전의 경도대본을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성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59년 석인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사재선생정만록』은 天, 地, 人 3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천과 지의 내용은 경도대학본과 내용이 겹친다. 天의 권1과 권2의 일부는 事蹟이라는 제목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일들을 『정만록』의 일기 기록과 격문, 교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탁영의 행적을 재정리한 것이다. 事蹟 上은 임진년(1592) 4월 13일 왜선의 등장에서부터 12월까지, 사적 下는 계사년(1593) 정월부터 기해년(1599) 명나라 군사들의 주둔 상황까지 적고 있다. 이어 天 권2의 일부와 地의 권3, 권4에는 각종 격문, 통문, 서간, 장계, 첩보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보물본 『정만록』의 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부 내용에서 보충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재수록된 것이다. 人의 권5와 권6의 일록은 보물본의 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록하고 있으며 부록은 경도대본 권5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록하고 있다.

책	권	내용	비고
천	권1	事蹟上	경도대본 권3·4
	권2	事蹟下. 都巡察使李洸移檄本道方伯守令及諸將文, 招諭使金誠一移檄左道兵使朴晉文, 檄諭我國被擄人書, 唐將李如松檄倭陣書, 縣令趙宗道通文, 招諭使金誠一通道內文, 附清正書, 國書答, 本朝辨誣書, 被擄倭人連汝文現告, 日本被擄唐人許儀俊陳情實記, 一陳日本國之詳, 一陳日本國入寇之由, 一陳禦寇之策, 一陳日本關伯之由, 一陳日本六十六國之名, 許儀俊等陳情書	
지	권3	朝報追聞, 敬附教書, 哀痛教慶尙道士民書, 敬附王世子曉諭軍民書, 自雲峯還本道啓, 龍仁奔潰後到牙山獻誠啓, 自禮山發還本道啓, 到南原請罪逃還將士啓, 還本道咸陽啓, 請擇送右兵使啓, 請援兩湖兵啓, 賊兵形止啓, 獻誠啓, 請都元帥馳援啓, 獻誠啓, 請別差將領率江原道軍來援啓, 請便宜從事啓	경도대본 권1·2 (조보·교서와 좌감사 장계는 보물본)
	권4	左道監司請遞縣監金忠敏啓, 左道監司通文于竄伏守令後啓, 教諭書節鉞見失後請罪啓, 獻誠啓, 賊犯湖南啓, 左道列邑鎮形止啓, 賊中逃還人取招啓, 獻誠啓, 天兵接待事啓, 都元帥啓	
인	권5	日錄上	보물본 건
	권6	日錄下 自叙, 附錄(征蠻錄命名事由, 題征蠻錄後[安鍊石], 跋[柳道禧, 李有銖])	

Ⅲ. 이서의 관점에서 본 임진왜란

1. 이탁영의 생애와 역할

李擢英(1541-1610)의 자는 子秀, 자호는 盤溪, 稱號는 孝思齋, 본관은 慶州이다. 신라 佐命元臣 謁平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李延年이고 어머니는 盆城 金氏 哲遜의 딸이다.²⁷⁾ 1541년 의성 芝谷里에서 태어났다.²⁸⁾ 조부 李健은 향리를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 이탁영은 15세때 부친이 기계에서 객사한 후에는 홀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다. 이탁영은 1565년(명종 20)에서 1566년(명종 21)까지 姜士尙이 경상 감사로 재직시 처음으로 영리에 들어온 이후²⁹⁾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감사 金수의 영리로 근무하고 있었다.³⁰⁾ 이탁영은 1600년(선조 33)에서 1601년까지 金信元 재직시까지 영리로 근무하였다. 그 이후에는 아들인 이정란과 이정훈이 영리로 근무하고 있다.³¹⁾

이탁영의 후손들은 이탁영의 공신 책봉에도 불구하고 향리의 직역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경상 감영의 기관 영리 명단을 적은 『嶺營掾房先生案』에 이탁영의 후손들이 영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³²⁾ 또한 이탁영 후손들의 혼맥은 다른 지방 이족과 이어지고 있다.³³⁾

27) 『孝思齋先生文集(李擢英)』 권2, 「부록」, 〈墓碣銘(金浩直)〉.

28) 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20.

29) 『道先生案(상주향교 소장)』, 1970, 국회도서관 영인, 54쪽.

30) 임진왜란이 일어나 도로가 통하지 않아 1592년 8월 경상좌, 우로 나누었다가 다시 1593년 10월 하나로 하였다가 1595년 2월 나누었다가 1596년 다시 하나로 합하였다. 이때 이탁영은 좌도 소속이었다. 임란을 전후한 시기(1591.7-1598.11) 감사 역임자는 金晬, 韓孝純(좌), 金誠一(좌, 우), 金玠(우), 洪履祥, 徐涓(우), 李用淳, 尹承勳, 鄭經世 등이다.

31) 『도선생안(상주향교 소장)』, 62쪽.

32) 『嶺營掾房先生案』(장서각 소장, B9D-6)은 경상 감영의 상층 기관 영리들의 명단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33) 이탁영의 아들 이정란의 딸은 안동의 대표적인 호장인 안동권씨 權得正과

<『嶺營掾房先生案』 내 이탁영 후손 등재 현황>

이름	생년	자	최종 직함	가족관계
李擢英	辛丑	子秀	行禮 任至吏部	
李廷薰	癸未	馨仲	行禮 任至吏部	李擢英 子
李廷葵			行禮 任至兵部	(李擢英 子)
李光喆	丙午	顯卿	行禮 任至吏部	李廷薰 子
李世豪	戊寅	凌萬	行禮 任至吏部	李光喆 子
李世傑	庚辰	當萬	行禮 任至吏部	李光喆 子
李千齡	辛丑	彭老	行禮 任至戶部	李世傑 子
李箕齡	丁未	彭耆	行禮 任至戶部	李世傑 子
李玄齡	丙辰	鶴老	行禮 任至吏部	李世豪 子
李大根	癸未	春卿	辛酉行禮 任至吏部	李玄齡 子
李百良	辛丑	興之	癸未行禮 任至吏部	李大根 子
李宜新	癸亥	日甫	庚子行禮 任至戶部	李箕齡 曾孫
李日新	乙丑	又甫	壬寅行禮 任至吏部	李百良 子
李昌億	戊子	子上	戊辰行禮 任至刑部	李日新 子
李奎億	乙未	子幹	乙卯行禮 任至戶部	李日新 子
李命億	丙戌	壽翁	甲申行禮 任至吏部	李日新 子
李殷恢	辛亥	愚如	壬辰行禮 任至吏部	李命億 子
李章恢	乙卯	慶一	丙申行禮 任至吏部	李昌億 子
李漢佑	甲戌	右人	癸亥行禮 任至吏部	李章恢 子
李漢亨	癸未	君仲	癸亥行禮 任至 部	李殷恢 子
李漢彥	乙酉	士賢	丙寅行禮 任至吏部	李章恢 子
李仁植	丁酉	源汝	癸酉行禮 任至 部	李章恢 孫
李基守	庚子	文約	庚辰行禮 任至 部	李殷恢 孫
李晚植	甲辰	善養	甲申行禮 任至 部	李漢佑 子
李春植	乙巳	周顯	丁亥行禮 任至 部	李章恢 孫

이탁영은 저술로 『考事錄』, 『龍蛇日記』, 『征蠻錄』, 『解頤錄』 등이 있다.³⁴⁾ 이탁영은 임진왜란이 끝나고서 집 뒤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인 慕先堂을 세웠다.³⁵⁾ 그 뒤 모선당 앞에는 연못인 永慕泉을 파고 그 남쪽에 새로 당을 만들어 孝思堂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602년 宗簿寺正 申塾이 당호와 당기를

결혼하였다. 권득정의 증손자가 花原君 權喜學이다(權永翁, 『家牒』). 이탁영의 손자인 李光喆은 상주 이족인 朴永生의 딸과 결혼하였다(『掾曹龜鑑續編』 권1, 「觀感錄」, 1982, 서강대학교 영인, 584쪽).

34) 『효사재선생문집』 권2, 「부록」, 〈行錄(金道和)〉, 〈遺事(李廷薰)〉, 〈墓碣銘(金浩直)〉.

35) 『효사재선생문집』 권1, 「기」, 〈慕先堂記〉.

지었다.³⁶⁾ 효사당은 1957년에 개수되었다.³⁷⁾

이탁영의 충절과 효행 정신에 대해 1706년 향인들의 추천으로 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의 증직이 내려지고 자손에게는 復戶의 혜택이 주어졌다. 1781년(정조 5)에는 이탁영을 기념하는 재사로 忠孝祠가 건립되었다. 묘우의 이름은 忠孝堂이다. 현령 趙命夏가 쓴 당기가 있다.³⁸⁾ 대원군 때 훼손되었다가 1923년 재건되었다. 충효사 앞에는 1957년에 복원한 孝思堂이 있다.

이탁영의 글로는 『효사재선생문집』이 있다. 문집은 권1에는 전쟁 중 지은 시와 서간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진중에서의 소회를 주로 읊고 있는데 특히 순절한 장수와 학봉을 위한 애도시가 있다. 서간은 학봉 김성일, 서애 유성룡, 백사 이항복, 몽촌 김수와 집안 가족에게 보낸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권2는 부록으로 유사와 행적, 효사당과 충효당 관련 자료, 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문집의 편찬은 정조대 만들어졌으나 출간은 1959년 후손인 李圭銖와 李宇榮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에는 1959년에 쓴 趙獻基의 서문이 있다.

<『孝思齋先生文集』 목차>

	내 용	비고
권1	序[趙獻基] 詩(咸陽陣中與金務安景訥聯吟九絕, 夜坐咸陽陣中, 公山幕左歎胡虜衝斥, 泗川途中伏見招諭使檄文, 十月念後聞招諭使幕投新寧縣舍, 方務左界各郡聞招諭使患寄遂停行, 悼各營殉義將卒, 公山幕左聞鶴峯先生訃音, 聞二陵遭變痛吟, 野叟歌) 書(上招諭使鶴峯金先生誠一, 上體察使西厓柳先生成龍, 上相國白沙李先生恒福, 上巡察使夢村金先生晬, 答芝谷族中僉老, 寄廷蘭廷薰兩兒, 寄薰兒) 記(慕先堂記)	시 10, 서 7, 기 1
권2	附錄(寄惠魚扇二絕[李光俊], 景慕詩[白雲翰], 題孝思堂二首[金重億], 行錄[金道和], 遺事[李廷薰], 孝思堂記[申塾], 忠孝堂記[趙命夏], 孝思堂重修記[趙獻基], 忠孝堂識[吳澈常], 遺事後敘[李敦裕], 一家三孝, 傳[李敦裕], 贊[外史氏], 祭文[徐相鶴, 安應昌, 徐命敷, 權再章, 權再章·金胤章·金瑞鼎·丁慎希, 吳有聖·金宗大·金宗仁, 金萬壽·金處仁·李就彥, 吳啓億, 權昌質], 廟宇上梁告由文[吳有聖], 奉安文[金胤章], 常享祝文[權載運], 廟宇重建上梁文[李敦裕, 申敦植, 李夏淵], 廟宇重建時奉安文[柳東濬], 豎碣告由文[洪在寬], 遺址碑銘[柳道獻], 墓碣銘[金浩直], 拾遺[金	

36) 『효사재선생문집』 권2, 「부록」, 〈孝思堂記(申塾)〉.
 37) 『효사재선생문집』 권2, 「부록」, 〈孝思堂重修記(趙獻基)〉.
 38) 『효사재선생문집』 권2, 「부록」, 〈忠孝堂記(趙命夏)〉.

<p>時儒], 呂誌, 監司封啓, 忠孝堂景慕詩[申敦植, 申燾祐, 金徽相, 李東坤, 金殷吉, 金致文, 權用和, 李心求, 權泰鵬, 權泰鳳, 權寧準, 權重湜, 李憲九, 權時鎰, 權寧魯, 金義潤, 權重洛, 權泰燾, 權重林, 吳時善, 權秀燉, 金炳宇, 金成銖, 金進成, 柳道昇, 朴正集, 金成浩, 權參淵, 申德洛, 權重直, 申榮植, 柳楨默, 朴世煥, 申鍾榮, 金壽禎, 任公碩, 金浩榮, 柳致玉, 柳健榮, 申基鳳, 李範五, 金浩一, 金元相, 徐相稷, 金夾鍾, 申世煥, 朴振秀, 金振鍾, 金在龍, 任慶宰, 吳鏡洙, 金興慶, 柳厚植, 柳丞佑, 申守祖, 李寅求, 李哲雨], 謹次忠孝堂景慕詩[李秀杰], 孝思堂景慕詩[李敦裕, 申敦植, 吳光發, 金壽鶴, 南石鎮, 朴相元, 李心求, 權用和, 權泰鳳, 金致文, 金有鍾, 李承驥, 柳周榮, 權泰鵬, 權重洛, 權寧準, 權重湜, 李憲九, 權時鎰, 權重殷, 權寧魯, 申紀煥, 金義潤, 權泰燾, 權重林, 吳時善, 金輝鍾, 權秀燉, 金炳宇, 金成銖, 金進成, 朴正集, 金鼎漢, 金成浩, 權參淵, 權重直, 金壽定, 朴世煥, 任公碩, 申鍾榮, 朴魯馴, 金壽禎, 柳健榮, 李泰麟, 金夾鍾, 申世煥, 朴振秀, 吳鏡洙, 朴春煥, 柳丞佑, 申守祖, 李鍾燦, 李東玩, 李圭銖, 李宇榮])</p> <p>跋[李有銖, 李宇榮]</p>

한편 『정만록』의 집필 의도와 관련하여 이서로서의 이탁영의 신분적 지위가 주목이 된다. 당시 각급 관서에는 기록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이들이 있었다. 경상 감사 김수는 영리였던 이탁영에게 이 일을 맡겼다. 게다가 이탁영은 감사들이 장계의 초를 맡길 정도로 문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공문을 읽어 버리면 처벌이 강력하였다. 경상 감사는 용인 전투에서 교유서와 절월을 분실하고서 승정원에 자인서를 제출하였다.³⁹⁾ 신령 현령 韓倜도 관인을 잃어버리고 음식조차 먹지 못하던 차에 의병장 權應銖가 사람을 풀어 찾아 주었다.⁴⁰⁾ 그만큼 수령들에게 있어서는 공문 관리가 중요하였다.

이탁영은 계초를 세 번이나 잃어버리고 계본도 정부가 관서로 피난가면서 잃어버렸으므로 나라가 회복되어도 전란의 상황을 알릴 길이 없으므로 자료를 모아 둔다고 적고 있다.⁴¹⁾ 그러나 실제로는 이탁영이 관련 문서를 집록함으로

39) 『정만록』 건, 1592년 6월 6일. “書者德夫 盡棄文書 只持給吾衣兩襲 是亦多幸 使相衣笠 許多行藏 金貫子金帶教諭書節鉞 並棄賊中”

『정만록』 곤. “臨戰時 教諭書節鉞奉持 恐有窘迫之患 教諭書則去桶 節鉞則去柄 藏置寢籠中爲白有在乎 初六日 陣前猝遇賊至 若預令搬運 則軍情動搖絃如 堅坐不動 欲爲捍禦之計爲白乎矣 諸陣已散 兇鋒遽逼 勢不得已退避 而教諭書 節鉞 亦爲見失 祇埃 朝廷罪責爲白臥乎事是良尔 詮次以善啓 承政院 開拆”

40) 『白雲齋實紀(權應銖)』 권1, 「연보」, 1592년 5월. 권2, 「부록」, 〈행장(李光庭)〉.

41) 『정만록』 곤. “自四月十三日變生後 至六月初五日 日三馳啓 啓草及許多邊報

써 이서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두려는 측면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탁영은 서류를 담당하였으므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평소의 일을 적은 일기류를 남겼기 때문에 전쟁 후의 자료 수집에 응하여 일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오래 동안 일본군의 지배하에 있었다.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점령 지역에서는 조선민과의 접촉이 불가피하였다. 당시 성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난을 가지 못하였던 이서층은 일본군과 일반민의 중간에서 많은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기 이서층의 행동 양태에 대해 대체로 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⁴²⁾ 점령 상태와 시기에 따라 이서층의 동향은 다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선조는 경상도의 이반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⁴³⁾ 전쟁이 끝난 후에 사족층을 제외하고 일반 백성들의 단순 부왜 행위에 대한 죄는 묻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서층은 자신이 충절을 지켰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의성의 이서 출신인 이탁영은 從軍으로, 그리고 그 가족은 避難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상도 점령 지역 이서층은 다른 선택이 많지 않았다.⁴⁴⁾ 이탁영으로서는 자신이 이러한 부왜 행위에 관련이 없음을 해명

公牒 盡失於水原地奔潰之日 政院所在啓本 亦失於西遷之時 無路傳寫 萬一恢復事定 則無憑可考 必未知決勝如何 故邊報次知 聞韶□□李擢英 不勝慨嘆 隨其見聞 記其萬分之一 自奔潰後 賊徒向方 成敗利鈍 詳在後篇 凡啓草亦謄書私藏 以爲他日之覽 慎勿掛他眼 莫買人笑 不勝幸甚”

42) 임진왜란 점령기 경상도 지역 향리층의 동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권기중은 상하를 구분하여 상층은 절의를 지키고 하층은 도망하거나 부왜한 것으로 보았다(권기중, 2007, 앞의 논문). 이에 반해 이훈상은 임란 이전 일련의 청원운동을 통해 권리를 향상시킴으로써 부왜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이 후일 경상도 지역 이서층의 신분 지속성을 가져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이훈상, 2006, 앞의 논문).

43)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임술(3일). “上曰 慶尙道人皆叛云 然耶”

44) 김만호, 2015, 『임진왜란기 민인의 반왕조 활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2~68쪽.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이 역시 이서층인 이탁영이 종군일기를 남기게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2. 전황 기술

보물본 『정만록』 전은 임진년 3월에서부터 기해년 5월까지 일기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다. 당시 감사는 임기동안 순력하는 행영 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⁴⁵⁾ 경상 감사 김수는 경상도 일원을 순력하고 있었다. 3월 초 청로, 의흥을 거쳐 창원을 지나 우병영에 도착하였으며, 웅천에서부터 사천까지 돌아보았다. 영리인 이탁영은 이를 수행하면서 4월 초 진주에 도착하였다.⁴⁶⁾ 영리 이탁영은 4월 14일 전쟁 시작 후 경상 감사 김수를 직접 수행하였다. 일기는 비록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적고 있으나 대부분은 김수를 중심으로 한 전황 기술이다. 8월 김수가 한성 판윤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金誠一(1538-1593)을 중심으로 기술이 이어지고 있다.

9월 10일 고향인 의성으로 돌아와 가족을 찾은 한편 9월 16일 이후는 대부분 의성에 있으면서 조보나 전통으로 들은 전황을 기록해 두고 있다. 그런데 1593년 이후는 일기 기록이라기보다 이탁영이 전문하였던 주요 전투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1593년 후반기 이후 1599년까지는 일본군과 명나라군의 동향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탁영은 명나라 군대가 아니면 적이 퇴각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⁴⁷⁾ 명나라 군대의 경우 장수들의 이름을 제대로 모두 적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길 정도로 대명의리의식을 보이기도 하였다.⁴⁸⁾ 그

45) 조선후기의 留營 체제와는 달리 조선전기는 감영이 行營 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巡歷이 중요한 행정 행위였다(이수건, 2004, 「경상도 감영의 성립과 직제」,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31~41쪽).

46) 영리는 감사가 순력할 때 이를 수행하면서 향도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掾曹龜鑑』 권1, 「吏職名目解」, 14쪽).

47) 『정만록』 전, 1593년 5월 17일. “若非天兵 則兇賊萬無退遁之理 皇恩罔極”

48) 『정만록』 전, 1598년 12월 1일. “天朝表表將官名號 左路諸將右路諸將 未得

러나 한편으로 명나라 군대의 주둔은 지역에서 군량 보급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곳곳에 기술되어 있다. 군량 보급은 당시 이서층이 마주하였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정만록』이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은 임진왜란 발발 이후 전황을 일기와 문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기 기록에서는 개인적인 전쟁 경험을 적고 있다면 『정만록』 곤에 수록된 각종 문서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보고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만록』은 임진왜란시기 개인적인 전쟁 경험과 지역에서의 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김수가 참전하였던 6월 용인지역에서의 전투 현장의 묘사는 비록 김수를 위주로 적었으나 정신없이 도망치는 조선군의 피해 상황을 미시적인 묘사를 통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⁴⁹⁾ 또한 이 기사의 바탕이 되는 전투 보고서는 별도로 장계로 보고되고 있다.⁵⁰⁾ 이를 통해 6월 용인지역에서의 전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족들의 기록들이 대부분 군공을 자랑하고 의병 거의를 顯揚하는 내용인 것에 반해 이탁영의 『정만록』은 각 지역에서의 전쟁 상황과 함께 일반 사람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적고 있다. 노모와 처자 간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걱정은 일본군의 살상 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와 사족이나 부녀자들의 처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의 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군의 잔혹상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 배가되면서 이에 대한 소회와 비애를 적고 있다. 게다가 이탁영이 감사를 수행하였던 영리였으므로 각 지역에서 보고된 피해 상황에 대한 『정만록』의 기술이 다른 일기류보다 상세하다.

이와 비례하여 附倭 정보도 자세하게 적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임진왜란 관련 각종 기록에서 부왜기록이 잘 남아 있지 않는데 『정만록』에서는 부왜 기록

記錄 欠事”

49) 『정만록』 권, 1592년 6월 2일~6월 6일.

50) 『정만록』 곤, 358~362쪽.

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기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거나⁵¹⁾ 일본군에 한꺼번에 백성들이 투항하거나 향소의 임원들이 투항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적고 있다.⁵²⁾ 특히 일부 조선인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왜인에 협력하면서 왜인보다 더 심한 경우를 언급하면서 개탄하고 있다.⁵³⁾

이와 같이 관군과 의병들의 동향을 볼 수 있는 각종 공식적인 보고 기록과 일반 백성들의 부왜나 피해 상황에 대한 묘사는 다른 임진왜란 관련 기술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쟁의 상황 묘사와 정보 보고에 충실하여 창의록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3. 전쟁을 보는 당파적 시선

이탁영의 『정만록』이 다른 동시기 임진왜란 관련 일기 기록과 차별이 되는 점은 이서가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족 출신의 인물이 쓴 일기류가 의병 활동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보았던 것과는 달리 당시 경상 감사였던 김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보고 있다.

김수에 대해 趙慶男(1570-1641)의 『亂中雜錄』이나 鄭慶雲(1556-?)의 『孤臺日錄』, 張顯光(1554-1637)의 『龍蛇日記』 등 일기류에서는 개전 전의 가혹한 축성사업 동원에 대해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⁵⁴⁾ 개전 후의 행적에 대해 전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을 다닌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⁵⁵⁾

51) 『정만록』 건, 1592년 7월 5일.

52) 『정만록』 건, 1592년 7월 11일.

53) 『정만록』 건, 1592년 7월 16일.

54) 『고대일록』, 1592년 6월 13일. “聚軍官廨 多有自願赴戰爭 懷敵愾之志 若使金晬緩築城之役 結人心之和 則安有土崩之患 吁”

『용사일기』, 『여헌선생전서』 하, 515쪽. “是時(中略) 金巡察乃督民 築城專務刻迫者也 一道人心如疾仇讐 以其名晬字與讐同聲 皆曰 巡察金晬真冤讐也”

55) 『난중잡록』, 1592년 4월 20일. “金晬自陝川 奔向知禮 出慶尙巡營錄”

『고대일록』, 1592년 4월 29일. “監司金晬 縮首居昌”

그러나 『정만록』에서는 이를 일본군에 대한 대응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만록』에서는 감사가 초기에 밀양에 계속 주둔하였다가는 호령할 길이 없으므로 4월 17일 부득이 영산으로 물러나 주둔하였다거나, 4월 19일 합천으로 이주하여 하루 묵었는데 중간에서 도모할 작정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4월 20일 고령으로 가다가 장례를 올리고 4월 22일 지례로 달려가 추풍령을 방어하려고 하였으며, 4월 26일 거창에서 동서로 대응하려고 하였다고 적고 있다. 4월 28일에는 경상도의 적이 비록 세력이 크지만 의리상 물러설 수 없으므로 근왕군을 일으키려 한다고 적고 있다.⁵⁶⁾ 6월의 용인 전투에서도 김수가 다른 감사와는 달리 목숨을 내 놓고 전투에 임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동문 제자였던 김성일조차 김수의 용인에서의 역할과 후의 행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⁵⁸⁾

김성일과 김수의 회동과 함양 회군에 대해서도 『고대일록』에서는 김수가 따르는 척만 하였다고 묘사한 반면에⁵⁹⁾ 『정만록』에서는 초유사의 권고로 도내적을 없앤 다음 근왕병을 일으키려고 하였다고 적고 있다.⁶⁰⁾ 勤王에 대해서도 『고대일록』에서는 칭탁한 것⁶¹⁾으로 생각한 반면에 『정만록』에서는 전라도 감사의 전통에서 경내를 총동원하여 내원하라는 왕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수록함으로써 적은 병사라도 근왕한 것은 국왕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것으로 적

56) 『정만록』 건, 1592년 4월 17일, 19일, 20일, 22일, 26일, 28일.

57) 『정만록』 건, 1592년 6월 6일. “湖南使相已先騎馬 獨我使相 堅坐不動 我突進疾聲力催曰 事已急矣 何不速騎馬 騎馬立督火急 則使相大有鎮定之計 凝然獨坐 我更告曰 將士已散 獨存遇害 則非但賊勢乘勝 辱國莫大 不如退保圖報云 須與賊鋒 已逼眼前 蒼黃騎馬 馳入亂軍中”

58) 『鶴峯先生文集續集(金誠一)』 권4, 「書」, 〈答柳西厓〉. “子昂誤國之罪 萬死難贖 而兩湖元帥皆被罪 而獨免者 抑何故耶 龍仁敗還之後 恐得大罪 張皇無實之事 誣上邊功 前後啓狀 皆以勝捷上聞 而人民糜爛 寇賊充斥之狀 則未嘗盡言之也”

59) 『고대일록』, 1592년 5월 10일.

60) 『정만록』 건, 1592년 5월 7일.

61) 『고대일록』, 1592년 5월 6일, 10일.

고 있다.⁶²⁾

이와 같이 영리인 이탁영의 시선은 임란 초기 김수의 행위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서고 있다. 또한 『정만록』에서는 김수의 가족들이 피난 갔던 임진강에서 몰살당한 소식, 사위의 사망 소식을 적으면서 그 참혹한 소식을 차마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⁶³⁾

金晬와 郭再祐(1552-1617)의 갈등에 대해서도 『난중잡록』에서는 6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두 사람의 갈등을 둘러싼 장계 자료를 모아 두면서 김수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대일록』에서는 김수와 광재우의 갈등에 대해 서로 잘못된 책임이 있다는 소회를 적고 있지만⁶⁴⁾ 내용 기술에서는 김수에 대해 개전 초기의 도망과 실책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수의 죄를 추궁하는 상소문을 소개하거나⁶⁵⁾ 김수가 한성 판윤이 되어 갈 때 짐을 실은 마필이 백 여필이나 되어 행렬이 20리나 이어졌다고 적어⁶⁶⁾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만록』에서는 의령에 사는 광재우가 자칭 의병장이라면서 격문을 지어 감사에게 보내왔는데, 글 속에는 和協을 잃은 글귀가 있기 때문에 김수가 대응을 준비하였다고 적고 있다.⁶⁷⁾ 그리고 김수는 변명하는 장계⁶⁸⁾를 마련하여 군관을 통해 올려 보냈음을 적고 있다.⁶⁹⁾

광재우와의 갈등 관계에 대해 이탁영은 별다른 평가없이 김수 입장에서의 대응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영리로서 상관이었던 감사의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규명하기보다 충실하게 소개하려는 측면이 강하였다.⁷⁰⁾

62) 『정만록』 건, 1592년 5월 14일.

63) 『정만록』 건, 1592년 6월 28일, 7월 13일.

64) 『고대일록』, 1592년 7월 1일.

65) 『고대일록』, 1592년 9월 2일.

66) 『고대일록』, 1592년 9월 21일.

67) 『정만록』 건, 1592년 7월 3일.

68) 김수가 올린 장계문이 『정만록』에 수록되어 있다. 『정만록』 곤, 452~461쪽.
“無狀小臣 上特聖明 妄意 防備諸具 若得十分措置 (중략) 既遭變故 更不可
強顏 仍留號令一道 斯速處置 以鎮一方爲白只爲 詮次以善啓”

69) 『정만록』 건, 1592년 7월 4일.

이순신에 대한 평가에서는 당파의 측면이 작동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택영은 상대적으로 박하게 평하고 있다. 『고대일록』에서는 적들이 전라도를 넘보지 못하게 된 것은 경상 우수사 元均(1540~1597)과 전라 좌수사 李舜臣(1545~1598)의 공로라고 적고 있다.⁷¹⁾ 『난중잡록』에서는 전라 좌수사 이순신과 경상도 제장의 연합에 의한 한산대첩을 적으면서 그 공을 크게 적고 있다.⁷²⁾ 이에 반해 『정만록』에서는 전라 수사가 공선 70여척을 당파하였다고 하나 만선을 당파하였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당파당한 적들이 도주할 길이 막히면 궁한 나머지 살육이 더욱 심해 질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통분할 일이라고 적고 있다.⁷³⁾ 1597년에는 통제사 원균의 패배 건을 특별히 적으면서 일본군의 기습으로 인해 조선 측이 피해 입게 된 것을 통분해 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당파나 신분적 입장이 서로 상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인계인 정경운이 작성한 『고대일록』에서는 선조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 광해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⁷⁵⁾ 『정만록』에서는 선조에 대한 일관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고대일록』에서는 토적의 의리를 알게 된 것은 鄭仁弘(1535-1623)과 金沔

70) 문집에 수록된 김성일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광재우가 간소배에 의해 무함 당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이를 살피줄 것을 청하고 있다. 이 서간은 김성일이 좌감사가 되기 직전 초유사로 재직할 때 보낸 편지로 보인다(『효사재선생문집』 권1. 「서」, 〈上招諭使鶴峯金先生〉).

71) 『고대일록』, 1592년 4월 23일.

72) 『난중잡록』, 1592년 7월 19일.

73) 『정만록』 건, 1592년 7월 11일. “而全羅水使 又撞破空船七十餘隻 痛憤哉 此事也 滿載船撞破 則實是嘉事 而只空船撞破之後 要功設計虛飾文字 上聞朝廷 下聽軍民 自朝廷至黎庶 專不知利害 尤增痛憤也 撞破空船之 故下陸之賊 永爲窮寇 無意遁還 益憤殺掠 可勝痛哉”

74) 『정만록』 건, 1597년 7월 15일.

75) 『고대일록』, 1592년 6월 17일. “封世子教書及敕文到郡 滿紙聖旨 令人不覺涕流 若使保邦於未先 制治於未亂 安有奉天之厄耶”

『고대일록』, 1593년 10월 15일. “上還宮之日 服錦衣而入 東宮着布衣 淚下如雨 行色草草 追感之容可掬 一國之人 咸仰戴欣欣然舉首曰 吾君之子也”

(1541-1593)의 두 대장 덕분이었다고 적고 있으며,⁷⁶⁾ 정인홍에 대해서는 『난중잡록』에서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⁷⁷⁾ 『고대일록』에서는 서인계인 鄭澈(1536-1593)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적고 있다.⁷⁸⁾ 이러한 평가는 『고대일록』을 편찬한 정경운이 북인계 인물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과 연관된다.

이에 반해 『정만록』은 임란의 전체적 상황으로 볼 때 의병보다는 지방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 서고 있다. 이탁영의 출신 지역이 경상도 의성이며, 임란 당시 모셨던 상관이 金晬와 金誠一 등 남인계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남인계 인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탁영은 경상 감사의 영리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상 감사의 시선에서 임진왜란을 보고 있다. 『고대일록』과 『난중잡록』 등에서는 김수를 문제적 인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이 책에서는 어려운 환경과 개인적인 불행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탁영이 기록한 『정만록』을 선조가 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⁹⁾ 의병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지방관을 비판한 다수의 자료 속에서 선조는 이를 통해 임진왜란시 지방관들의 역할과 분투에 대한 전혀 다른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선조가 의병에 대해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당시의 관료들이 올린 장계, 첩보 기록과 함께 『정만록』도 일조를 하였을 것이다.

4. 이서의 신분적 시각

『정만록』에서는 당시 이서층의 임진왜란에서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이탁영의 주위에 있었던 이서들의 임진왜란 시기 활동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⁸⁰⁾

76) 『고대일록』, 1592년 6월 22일.

77) 『난중잡록』, 1592년 5월 26일.

78) 『고대일록』, 1594년 1월 10일.

79) 『호사재선생문집』 권2, 「부록」, 〈遺事(李廷薰)〉, 〈監司封啓〉.

이탁영은 향리 가운데 공적이 있거나 군공 상급으로 신분을 상승시킨 예를 별도로 적어두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高彥伯(1545~1609)이다.⁸¹⁾ 고언백은 인천 교동의 공생 출신으로⁸²⁾, 전쟁이 발발하자 공을 세워 특별히 양주목사를 제수받아 왕릉을 잘 지켜 1593년 경상도 좌병사로 승진하였다. 고언백은 향리 출신으로 고위직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⁸³⁾ 또한 『정만록』에서는 하급의 군관 등 신분이 낮은 인물들이 장계를 들고 행재소에 갔다가 벼슬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기술은 이탁영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 상승의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사천 가릴 것이 없이 적의 머리를 베어오면 상급을 준다는 전문의 내용을 『정만록』에 기술한

80) 1592년 김수 휘하의 영리는 다음과 같다. 『도선생안』, 60쪽. “河自溶, 李先民, 李擢英, 鄭遵禮, 李光祜, 卞懷寶, 李鵬壽, 裴贊, 鄭終涵, 李廷蘭, 河景蘭, 權大中, 李東秀, 鄭希凱, 白如壁, 李允成, 李湖, 李賀, 河孟龍, 河景深, 李景祜, 金就衡, 文自保, 金就英, 唯 姜敬毅 復差”

81) 『정만록』 건, 1592년 7월 15일. “時喬桐貢生高彥伯 率牙兵三百 突進夜戰 射矢如雨 倭賊自劒者居多 待明見之 則賊屍狼藉遍野 餘賊二百餘名 轉入北道 高彥伯特拜楊州牧使兼助防將云”
『연조귀감』 권3, 「관감록」(126쪽)에서도 『정만록』의 해당 기사를 소개하면서 고언백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있다.

82) 『고대일록』, 1592년 8월 3일. “喬桐居奉事高彥伯 夜入箕城 驚感賊衆三百餘人 自相刺殺 因是少挫 上嘉彥伯即除爲楊州牧使 彥伯素有膽略忠勇絕倫 遇賊直入 少無畏恟 人皆倚之 屹若長城焉 彥伯與洪戒男齊名 畿清之賊 不敢肆毒者 二人之功也”

83) 『선조실록』 권 52, 선조 27년 6월 신해(4일). 고언백과 경상도 병마절도사인 김응서와 크게 대립하여 조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한미한 신분 출신이 고위직에 오를 경우 호령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전전에도 이미 문제가 되었다(『선조실록』 권 25, 선조 24년 2월 을해, 劉克良 기사).

84) 『정만록』 건, 1592년 8월 4일. “軍官李自海 乃庶派人也 卽昆陽郡守李光岳之孽屬 去五月初生 持啓本行到泰安地敗船 還得回還船 行到江華地逢倭賊 還來于牙山縣使相到龍仁見敗 還來時相逢由外海 又向關西其爲存 沒了莫聞知 今因忠清使相通簡 李自海得到行在所 中文科別試副壯元云 有志者事竟成 正謂此人也 忠清道啓本陪去人 亦中武科云”

『정만록』 건, 1592년 9월 1일. “右水營軍官成守慶 陪啓本上京 得除晋判”

것⁸⁵⁾도 이탁영이 가진 신분 상승에 대한 소망을 보인 것이다.

『정만록』에서는 이서간의 유대의식에 대한 정보도 전하고 있다. 이탁영이 개전 초기 감사를 수행하면서 각 지역을 전전할 때 각 군현 향리의 잉존은 이들 간의 깊은 유대성을 보여주고 있다.⁸⁶⁾ 이탁영은 『정만록』 외에도 지역 향리들의 전기 기록인 『解頤錄』을 편찬하였는데 비록 전체 기록의 일부이긴 하나 『掾曹龜鑑』에 인용되어 있는 『해이록』에 수록된 인물⁸⁷⁾에 대한 기술 내용을 보면 향리 출신으로 뛰어난 재능으로 관직에 오른 자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吏胥層의 행적에 대한 기술과 유대의식은 이탁영이 신분적 측면에서 이서로서의 위상에 대해 나름 일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탁영의 문집에 수록된 제문과 고유문 등을 대부분 경상도 지역의 이서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權再章 金胤章·金瑞鼎 丁愼希가 작성한 제문에서는 이탁영에 대해 ‘吾黨領袖 後生師表’라고 적고 있다.⁸⁸⁾ 이탁영이 영남의 이서 사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만록』은 경상 감사 김수를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본다는 점에서 사족들이 의병을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실기류가 지방관의 경우 군공을 자랑하거나 혹은 의병의 경우 행적을 현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정만록』은 중인 출신의 이서로 임진왜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적의 과시보다 각지에서 들어오는 전황 정보와 피해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전공의 자랑보다 전쟁을 겪고 있는 동안의 개인적인 단상과

85) 『정만록』 권, 1592년 6월 4일. “承傳內 得一首者 勿論公松賤 許登科 得二首者 六品陞叙 得三首者 陞堂上 得倭將者 勳封嘉善 故云耳”

86) 임진왜란 초기 이탁영의 행로와 군현 향리의 잉존실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권기중, 2007, 「임진왜란 시기 향리층의 동향과 전후의 향리사회」, 『역사와 현실』 64, 104~105쪽.

87) 『해이록』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상주 향리 이진홍이 편찬한 『연조귀감』 권3, 「관감록」(122~125쪽, 133~134쪽)에 인용되어 있다. 발췌된 기록이지만 원래 『해이록』에 수록되었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88) 『호사재선생문집』 권2, 「附錄(祭文)」, 〈又(權再章·金胤章·金瑞鼎 丁愼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는 것도 양반 사족의 실기와 다른 점이다. 이것도 『정만록』이 가지는 기록으로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정만록』은 감영의 영리인 이탁영이 전란기 동안 매일 기록을 남기고서 이를 별도로 정리하여 일록을 만들면서 공문을 추가하여 성책한 것이다. 당시 경상도의 공문기록인 『경상순영록』이 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진왜란 기간 동안 경상도에서 수집된 공문 기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임진왜란 참전을 통해 지방 사족들은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의 지속적인 창출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전 가문에서는 출신 인물들의 전공이나 역할을 강조하는 倡義錄이나 日記 기록들을 확대 재생산하여 왔다. 이로 인해 오늘날 임진왜란을 보는 시각에서는 사족들의 창의 논리가 적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관료들도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각종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선으로 보는가는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치적 입장과 신분적 입장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입장으로 본다면 유성룡의 『징비록』은 남인 당로자와 의병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 서고 있다. 임란 중 지방 사족들의 일기 기록인 조정남의 『난중잡록』과 정경운의 『고대일록』은 대체로 의병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 서고 있다. 그 가운데 『고대일록』은 광해군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쟁을 보고 있다. 그에 반해 남인 계열의 수령 혹은 사족이나 의병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기록자의 신분적 배경도 중요한데 현존하는 임란의 일기나 실기류는 대부분 지방 사족들이 집필하고 그 후손들이 편집하였다.

그러나 이탁영은 경상 감영의 영리 역임자이다. 이에 따라 『정만록』은 지방 이서의 시선에서 임진왜란을 기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내용에서는 이탁영의 근거 지역이 경상도 의성이며, 모셨던 상관이 김수와 김성일 등 남인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남인에게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족들의 일기나 실기와는 달리 이탁영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전황과 피해 상황 기술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며, 개인적 단상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정만록』은 경상도에 거주하였던 영리가 남인 상관을 모신 정치적 입장과 이서라는 신분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의 모습이라는 점에 일정한 의의가 있다.

논문투고 : 2016.11.14, 논문심사완료 : 2016. 12. 15, 게재확정 : 2016. 12. 20

참고문헌

- 『家牒(權永翁)』
『孤臺日錄(鄭慶雲)』
『冠陽集(李匡德)』
『國朝寶鑑』
『亂中雜錄(趙慶男)』
『道先生案(尙州鄉校本)』
『白雲齋實紀(權應銖)』
『西厓集(柳成龍)』
『宣祖實錄』
『兩朝平攘錄(諸葛元聲)』
『掾曹龜鑑(李震興)』
『嶺營掾房先生案(藏書閣本)』
『龍蛇日記(張顯光)』
『龍蛇日錄(天理大圖書館本)』
『認齋集(崔峴)』
『壬辰變後日錄(李擢英)』
『征蠻錄(京都大圖書館本)』
『鶴峯先生文集(金誠一)』
『海藏實記(高彥伯)』
『孝思齋先生文集(李擢英)』
『孝思齋先生征蠻錄(李擢英)』
『後溪集(李頤淳)』

- 권기중, 2007, 「임진왜란 시기 향리층의 동향과 전후의 향리사회」, 『역사와 현실』 64.
김만호, 2015, 『임진왜란기 민인의 반왕조 활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인호, 2008, 「임진왜란기 지방 지식인의 피난살이 - 장현광의 용사일기를 중심으로 -」, 『선주논총』 11: 2010,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서.
박인호, 2012, 「임진왜란의 경험과 역사 정리 작업 - 신석겸의 선묘중흥지를 중심으로 -」, 『한국사학사학보』 26.
박인호, 2016, 「임진왜란기 구미 지역의 사족 동향과 의병 활동」, 『국학연구』 30.
이상훈, 2010, 「임진왜란관련 사료해제」,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편,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이수진, 2004, 「경상도 감영의 성립과 직제」, 『경상감영의 종합적 연구』,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이훈상, 2006, 「조선후기 경상도 감영의 영방과 안동의 향리사회 - 안동 향리사회의 영방 주도권 유지 전략과 향리 가계들의 상호 견제 기제 -」, 『대동문화연구』 55.

장경남, 1997, 『임진왜란 실기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혜은, 2013, 「조선후기 선조에 대한 현창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6.

Abstract

Summary of the War Experiences of Local
Functionari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1598)
- with a special focus on Yi Takyong's
Jeongmannok

PARK, In-Ho

The *Jeongmannok* is a summary of war experiences written by a local functionary (*hyangli*) named Yi Takyong (1541-1610)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1598). Yi Takyong assisted the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in his capacity as a petty officer (*yeongli*) attach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gamyeo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values and implications of the *Jeongmannok*, paying specific attention to the perceptions of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viewed of a person who belonged to the bureaucratic middle class (*jungin*).

The local gentry (*sajok*) saw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as an opportunity to maintain their superior status by participating in local righteous army (*uibyeong*) activities. As such, the families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righteous army activities continuously expanded and

reproduced records such as the *Changuirok* and diaries or daily records (*ilgi*) emphasizing the achievements and great roles played by their ancestors. To this end, the notion of initiative righteousness possessed by the local gentry has been reflected in the modern perception of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The bureaucrats who went through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left behind various records to justify their roles during the war time.

Yi Takyeong was a petty officer attach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in Gyeongsang Province. In this regard, the *Jeongmannok* describes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a local clerk (*iseo*). Yi lived in the Uiseong area of Gyeongsang Province. Yi maintained a favorable opinion of the Southerners (*namin*) faction, a group to which immediate superiors such as Kim Su and Kim Seongil belonged. Yi Takyeong described in great detail the activities of the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Kim Su and the tragic situation which befell Kim Su's family. Contrary to the diaries and daily records written by the members of the local gentry, Yi described the actual war situation and reported on the damage in different areas. However, the majority of the *Jeongmannok* is reserved for personal thoughts and longing for family.

Considering these aspects, the significance of the *Jeongmannok* can be said to stem from the fact that it sheds light as to how a local functionary residing in Gyeongsang Province came to view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assisting his superiors from the Southerner faction as well as from his vantage point as a member of the middle class (*jungin*).

<p>Keywords : Yi Takyeong, <i>Jeongmannok</i>, petty officer attached to th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 (<i>yeongli</i>), local clerk (<i>iseo</i>), Kim Su,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1598)</p>
